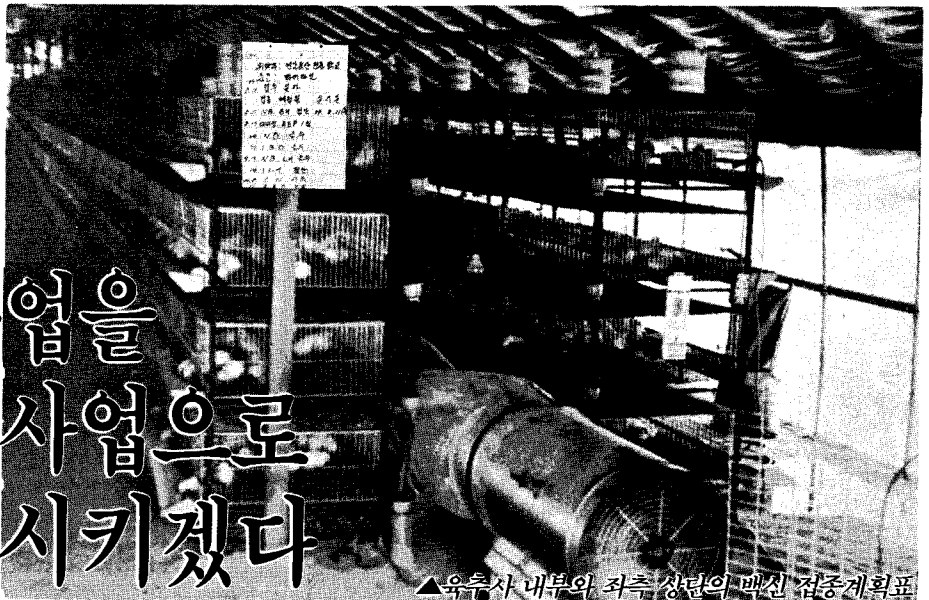


# 중추업을 신용사업으로 정착시키겠다



▲육축사 내부의 직육상란의 배신 잠종계획표

「예방접종 미실시」, 「품종속임」, 「일령속임」, 「육계사료 급여」 등의 말은 중추업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불신의 대명사처럼 불리우고 있는 중추업을 신용을 바탕으로 양계업계에 정착시키겠다는 봉래농장을 찾았다.

수의사 김형주씨.

그는 10여년전 천안 봉명부화장에 근무하면서 중추사육의 전문성이 필요함을 느껴왔다. 부화장에서 분양된 병아리가 육추·육성의 실패로 인하여 산란성적이 엉망인 것을 보아오면서 전문중추농장을 운영하여 품질 좋은 중추를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지금까지 준비작업을 해왔다고 말하고 있다.

닭 일생중의 산란성적은 병아리 육추·육성의 성공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일생중 가장 중요한 육성기를

중추농장에서 관리하지만 산란계농장에서 그 결과를 얻게 된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불량중추가 나오고 있는 원인이 되지만 김사장의 경영철학은 이와 반대이다. 사육관리를 잘못된 중추로 내가 손해를 본다면 괜찮지만 나의 잘못으로 남에게 누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더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다



▲김형주 사장

고 말하고 있다.

산란계농장에서 난가에 의해 중추를 충동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농장의 입추계획에 의해서 중추를 위탁사육하도록 전환되어야 한다.

봉래농장은 80%이상을 위탁사육하고 있어 중추판매에 부담을 갖기 보다는 품질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품질 좋은 중추는 판매에 걱정이 없다는 전략이다.

경영자의 의지만 가지고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봉래농장이 위치한 아산군 음봉면은 양계질병에 청정지역이며 또한 지형이 사방으로 확대인 곳이어서 닭에게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을 택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성실한 관리에서 품질이 좌

우된다. 지금까지 양계를 같이 해온 동생이 농장장으로서 책임 있는 관리를 해 주고 있다. 특히 부화장에서 종계와 중추사육에 17년의 경력을 가진 김길진 관리기사가 경험을 바탕으로 병아리를 정확하게 관리해 주고 있어 우수한 품질의 중추생산을 위한 막강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중추를 산란계 농장에 인도할 때는 가축위생연구소 혈청검사 결과, 사육일지는·물론 사용백신에 대한 확인증명까지 해주고 있다. 특히 중추인도로 끝나지 않고 산란계 농장에 대한アフター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농장규모는 7,000평의 부지위에 70~80평 계사 11동이다. 이곳은 부지선정과 계사건축을 중추만을 전문으로 사육하기 위해 준비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표1. 백신접종프로그램

일 령	백 신 접 종
1.	B <sub>1</sub> , IB 혼합백신 점안접종
7	AEP (계두, 뇌척수염) 혼합백신 1침, 디비킹
14	B <sub>1</sub> 음수
21	IBD 음수
28	Lasota, IB 음수
35	ILT 1차 점안
56	CN T 사독
63	AEP 2침



▲7일령 디비킹과 AEP 접종을 하고 있다.

또한 기존계사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계사를 지을 준비를 하고 있어 양쪽을 격리시킨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특히 계사를 크지 않게 함으로써 온도조절과 환기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설계하여 병아리를 강건하고 균일하게 키우고 있다.

아직까지는 보편적으로 중추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지만 우수한 중추를 생산하는 중추농장이 늘고 있어 기존산란계농장

에서의 번거로움과 경제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중추업이 활기를 띠리라 예상된다.

모든 관리인이 중추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 중추 품질을 높여 중추업을 신용사업으로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축산을 전공했고, 하고싶은 축산업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냐”고 말할 정도로 축산인으로서의 자부심 또한 대단했다. [양계]

취재/권동원 기자

▼쾌적한 환경의 육성사

